

공고 체크 카드 — 채용공고에서 먼저 보는 3가지

회사 · 직무

공고일 · 마감

자소서를 쓰기 전에 공고를 세 가지 눈으로 읽습니다. 공고 한 장에 카드 한 장. 칸을 채우다 보면 자소서에 쓸 것과 회사에 물어볼 것이 나옵니다. 공고에 없는 것은 짐작해서 채우지 않습니다.

01

시킬 일

들어가면 시킬 일 담당 업무 칸

보는 법 맨 윗줄부터 봅니다. 그리고 문장이 «운영 · 기획»으로 끝나는지, «지원 · 보조»로 끝나는지 봅니다.

맨 윗줄 업무

그다음 업무

끝나는 말

운영 · 기획 / 지원 · 보조

내가 해 본 가장 가까운 일

언제 · 무엇을 · 얼마나

02

거르는 선
가산점

거르는 선과 가산점 자격 요건 · 우대 사항 칸

보는 법 못 채우면 걸러지는 조건과, 채우면 점수가 되는 조건을 나눕니다. «성실하신 분»처럼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말은 꾸밈말로 따로 뺍니다.

거르는 선 ①

채움 · 일부 · 빈칸

거르는 선 ②

채움 · 일부 · 빈칸

가산점 ①

채움 · 일부 · 빈칸

가산점 ②

채움 · 일부 · 빈칸

꾸밈말

자소서에 되받아 쓰지 않기

03

조건

조건 고용 형태 · 급여 · 근무지 · 마감 · 채용 방식

보는 법 적힌 것과 안 적힌 것을 나눕니다. 수시 채용이면 마감일 말고 공고가 뜬 날도 적습니다.

고용 형태 · 수습

정규직 · 계약직 · 인턴

급여

숫자 · 범위 · 적혀 있지 않음

근무지 · 근무 시간

채용 방식 · 마감

공개 / 수시 · 날짜와 시각

적혀 있지 않은 것

뒷면 «물어볼 것»으로

공고는 하나씩 읽는 글이 아니라, 같은 칸에 나란히 놓고 보는 표입니다.

세 가지는 연구소의 제안입니다(채용 안내 글들이 공통으로 짚는 칸을 묶었습니다). 공인된 기준이 아닙니다. · 자료실 aicareerlab.co.kr/materials · 한국경영교육연구소 청년 AI 커리어랩

지원 전에 확인할 것 — 공고에 적혀 있나요?

회사 · 직무

확인한 날

적혀 있으면 네모에 표시하고, 없으면 맨 아래 «물어볼 것»에 옮겨 적습니다. **적혀 있지 않다고 나쁜 회사라는 뜻이 아닙니다.** 지원 전에 물어볼 것이 생겼다는 뜻입니다.

1 고용 형태

- ☐ 정규직 · 계약직 · 인턴 가운데 무엇인지
- ☐ 계약직 · 인턴이면 기간이 얼마인지
- ☐ 전환 기준이 적혀 있는지
«전환 가능»은 전환을 약속한 말이 아닙니다
- ☐ 수습 기간과 수습 기간의 급여

2 급여

- ☐ 숫자로 적혀 있는지
«회사 내규» · «면접 후 협의»는 숫자가 없는 것입니다
- ☐ 범위만 있으면 무엇으로 정하는지
- ☐ 수당 · 성과급이 따로인지, 얼마인지

3 근무

- ☐ 근무지가 어디인지, 바뀔 수 있는지
- ☐ 근무 시간 · 교대 · 주말이나 토요일 근무
- ☐ 재택 근무가 있는지

4 일정과 절차

- ☐ 공개 채용인지 수시 채용인지
수시 채용은 공고가 뜬 날도 봅니다
- ☐ 마감 날짜와 시각
요일과 날짜가 서로 맞는지도 봅니다
- ☐ 전형 절차(서류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)
- ☐ 지원서를 어디로 내는지

5 제출물

- ☐ 자기소개서 문항 수와 글자 수
- ☐ 꼭 내야 하는 것(링크 · 포트폴리오 · 증빙)
- ☐ 가점 서류를 언제까지 올려야 하는지
- ☐ 블라인드 채용이면 쓰면 안 되는 내용
- ☐ 자기소개서의 AI 사용에 관한 유의 사항

6 내가 답할 것

- ☐ 졸업(예정) 시기가 조건에 맞는지
- ☐ 공고가 요구한 면허 · 자격 · 어학 성적
- ☐ 공고가 정한 날부터 일할 수 있는지
- ☐ 교대 · 지방 · 순환 근무를 할 것인지

물어볼 것 —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것
